

보해양조, 전북도로부터 감사패 받아 복분자 415t 수매 능가 어려움 덜어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복분자 415t을 수매해 재고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농가의 시름을 덜어준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보해양조(주)는 전라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와 도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보해양조(주)는 최근 복분자 재고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전북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복분자 대량 수매를 결정했다. 총 수매량은 지난해 복분자 재고분 135t과 올해 생산량인 280t을 합한 양이다. 채원영 보해양조(주) 사장(사진 왼쪽)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홍훈 경영지원본부장, 송석주 사외이사장 등도 참석해 복분자 소비 진작에 힘쓰고 있는 전북도청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전북도청은 보해양조(주) 본사가 있는 전남뿐만 아니라 특별한 연고 없는 전북 지역의 복분자를 추가로 수매한 것으로, 보해양조(주)의 대승적 상생 경영이 호남 지역 전역에 귀감이 됐다고 전했다. 채원영 사장은 “보해복분자주를 생산하고 있는 호남 연고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의 애로사항을 통감하고, 전북 지역 복분자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복분자 수매를 전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기업 차원에서 건강에 좋은 복분자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복분자의 소비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범인 잡는 아빠가 존경스러워 경찰 됐어요”

할아버지 이어 3대째 경찰의 길 광주 동부서 전지은 순경

할아버지와 아버지 뒤를 이어 3대(代)째 경찰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 경찰관’이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 자원파출소 전지은(여·26) 순경은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전영득(55) 경감의 딸이다. 그는 전남청을 대표하는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전 순경의 할아버지인 고(故) 전장건씨도 영광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위로 퇴직했다. 전 순경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꿈이었다. “아빠는 늘 현장에 나가있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와 딸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도 경찰을 하면 아빠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제 대를 이어 경찰이 되려는 막대한 꿈은 강박사건을 계기로 더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전 순경이 중학생일 때 일이다. 당시 광주시 서구 유스퀘어에서 부녀가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성이 흥기로 여성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비명소리가 들리자마자 아빠는 저를 두고 뛰쳐나갔어요. 놀란 마음에 뒤따라 갔는데, 아빠가 그 남성을 한순간에 제압하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하는 일을 알게됐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빠가 존경스러웠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척척’ 해결해 언론에 보도되는 아빠를 볼 때마다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반대하던 부모도 이제는 “잘했다” 응원·조언 아빠와 같은 일 하니 마음맞고 애깃거리 재미

전 경감은 경찰관이 되겠다는 딸이 영 탐탁치 않았다. 워낙 위험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경찰대학 입학에 실패한 뒤 좌절한 그녀에게 넌지시 “심리학을 전공하면 나중에 경찰이 되어도 많은 도움이 될거야”라고 조언해줬던 것도 전 경감이다. 오로지 경찰만 바라봤던 딸에 상심했던 전 순경은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전남대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경찰이 된 지금 현장에서 전공을 특목히 살리고 있다. 전 순경은 “아빠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출동하면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술에 취해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을 만나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처음 경찰입문을 반대했던 전 경감은 이젠 “경찰관 딸이 더 좋다”고 말한다.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 탓에 딸과 대화가 거의 없었던 편이었는데,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 거리가 생기고 대화 시간도 부족 늘었다고 한다. 전 경감은 어린 후배(?)에게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멘토이자 든든한 우군이다.



전지은 순경과 전남경찰청 전영득 경감.

전 경감의 초미 근무지는 금남지구대. 전 순경이 동부경찰서로 발령받아 처음 업무를 배웠던 곳도 금남지구대다. “직업들이 우리 아빠가 진짜 수사를 잘하는 경찰이라고 칭찬했어요. 할아버지도 수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요. 저도 꼭 수사계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박기용기자 pboxer@

삼성전자 봉사센터, 게임중독 예방 후원금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광명·왼쪽)는 29일 굿네이버스(본부장 김수경),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과 게임과몰입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제공>

김백수 건보공단 광주본부장 신지식인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백수(가운데) 본부장이 최근 사회공헌 분야 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됐으며, 신지식인 대상(특별상)도 수상했다. <건보공단 제공>



“경찰 업무 체험하세요”

광주 서부 청소년경찰학교 옛 광천동 치안센터에 등지

광주 서부 청소년경찰학교가 지난 28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관 교육이 가능한 청소년, 강력반 형사들의 활약상이 궁금한 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시설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옛 광천동 치안센터에 등지를 들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입교한(체험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이 가능한 교육관, 야외 공연장, 모의관중 이용 시뮬레이션, 과학 수사 장비 체험장, 경찰 의복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교육용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경찰관이 하는 다양한 업무, 범죄 현장에서의 활약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영상 시청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도 호기심을 채우지 못한 청소년들은 시설에 상주하는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서부경찰 학교전담팀은 입시와 성적 교육관계 고민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 줄 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면 누구나 체험 신청(062-570-4497·서부서 학교전담경찰관팀)을 할 수 있다. 오윤수 광주서부경찰서장은 “서부청소년경찰학교는 학생들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경찰학교에서 꿈과 희망을 채워가길 희망한다”면서 “경찰이 항상 학교폭력 등 학생들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요소를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고 학생들 옆에 있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통합 광주시배구협회 초대회장 전갑수씨 선출

초대 통합 광주시배구협회장에 전갑수(56) 백양실업대표가 선출됐다. 전 회장은 29일 광주시체육회 2층회의실에서 열린 엘리트 배구·생활체육 배구 통합 광주시배구협회 초대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입후보해 전체 대의원 10명 전원의 표를 얻어 임기 4년의 회장에 선출됐다. 전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에 모두 성공하는 경기단체가 되도록 불심양면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선출된 전 회장은 광주시체육회 이사,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광주시배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해마다 30여명의 선수에게 배구꿈나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주니어 영어통번역 대회’ 성료

‘제7회 광주시 전국 주니어 영어통번역 대회’가 지난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대회에서 초등학생부 김재은(6년·광주 서일초)양과 중학생부 홍준서(1년·완주 화산중)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중등부 최우수상은 고영현(동성중), 유성민(고창 영성중), 초등부에서는 박재유(광주불로초), 차승언(진주 신진초)군이 수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영어방송과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80명이 참가했다. 광주시는 수상자 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제행사 통역자원봉사 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사

- ◆장흥군 ◇5급 승진(승진리더과정 교육 대상 선발)

- ▲마영우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 ▲김병수 기획감사실 ▲손승현 로하스타운사업소 ▲문정걸 농업축산과 ▲김규중 보건소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서해현(서광병원 원장)·류혜경(서광병원 원장)씨 정남 상현(카이스트 연구원) 군 김민순씨 차녀 김미정(카이스트 연구원) 양=7월2일(토)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카이스트 정문출발 1층 드림홀.

등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성·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6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등문모임=7월5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시 서구 능성동 라페스타웨딩홀(구 메리이트웨딩홀 062-366-7766) 문의 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향우회

▲재광 나주향우회 회장 이·취임식=7

월7일(목)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P&I웨딩홀 4층. 이임회장 유덕찬, 취임회장 김보근.

종친회

▲나주정씨 호남종친회(회장 정우화) 상반기 이사회=30일(목)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유동 종친회관 2층 사무실 062-366-4669.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366-4669. ▲지역아동센터광주지부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

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비를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별,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음주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등 무료 상담, 열린마음상담센터(오지·두암·무등·우산·각화)에서 매주 월·금 오후 2시~6시까지, 문의 062-526-337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각종 체험활동, 수시 입소가능, 12~22

세 남자. 062-953-6101.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 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 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듬 수업 :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부음

▲김충심씨 별세 윤용찬·송준·정민·현순·현숙·순정씨 모친상 김한중·임기욱·김옥재씨 방모상=발인 30일(목) 조선대 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201호 故윤선자 님(여/80세) 子/子婦 : 박남호/김희순, 남국, 남식/서민희 女/婿 : 박영희/강병우, 영산/희정석 • 발 인 : 6월 30일 • 장 지 : 영락공원	301호 故김재권 님(남/75세) 子/子婦 : 김윤환/김은주, 용두/송장남 女/婿 : 김용자/한영준 未亡人 : 조유남 • 발 인 : 7월 1일 • 장 지 : 보성문덕선영
402호 故오경주 님(여/83세) 子/子婦 : 이상규/김덕진, 성찬/김경주	102호 故이고덕 님(남/84세) 子/子婦 : 이상규/김진영, 성환/이민영 女/婿 : 이은미/이바다 • 발 인 : 6월 30일 • 장 지 : 나주남평선영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